



북송 · 금대 고분벽화 속 묵서와 그 시각적 의미

Moshu: Ink Inscriptions on the Walls of the Song-Jin Tombs and Their Visual Significance

저자 (Authors)	지민경 Ji, Minkyung
출처 (Source)	미술사학 , (33), 2017.2, 7-36 (30 pages) Art History , (33), 2017.2, 7-36 (3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미술사교육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rt History Education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113206
APA Style	지민경 (2017). 북송 · 금대 고분벽화 속 묵서와 그 시각적 의미. 미술사학, (33), 7-36.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18/04/12 10:3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북송·금대 고분벽화 속 묵서와 그 시각적 의미*

지민경**

I. 머리말

II. 북송·금대 묘실 묵서와 제작 배경

III. 묵서의 유형과 배치

IV. 기록인가 이미지인가?: 묵서 제작 행위와 시각성 재고

V. 맺음말

I. 머리말

중국의 고대 고분의 벽에서 종종 발견되는 묵서(墨書)는 특수 유형의 고대 기록물로, 사자(死者)의 일생 뿐 아니라 일반적인 문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실을 전하는 귀중한 역사 자료이다. 흔히 부장용 기록 유물로 분류되지만 다른 유물과 달리 묵서는 이미지의 설명, 벽화 작업의 지시, 묘주의 지위와 행적의 기록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묵서가 전하는 여러 내용 중 사자의 행적과 공덕의 기록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방법론에 있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묘지명(墓誌銘)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¹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정된 시각으로는 묵서의 면면을 살피기 어려

* 이 논문은 2016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조교수

¹ 지금까지 묘실 묵서명(墨書銘)은 주로 한문학, 금석문학, 역사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왔는데, 서예나 기록으로써의 묵서에 대한 관심은 국내 연구에서 두드러진다. 국내의 묘실 묵서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근식, 「德興里 壁畫古墳의 墨書와 圖像검토를 통해 본 鎭의 國籍」, 『동국사학』52(동국사학회, 2012), pp. 1-35; 김양균, 「모두루묘(牟頭婁墓) 묵서묘지(墨書墓誌)와 북조(北朝) 사경체(寫經體)」, 『강좌미술사』41(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3), pp. 335-353; 손영중, 「고구려벽화무덤의 묵서명과 피장자」, 『고구려발해연구』4(고구려발해학회, 1997), pp. 289-299; 孫煥一, 「高句麗 古墳壁畫 銘文의 書體에 關한 研究」, 『고구려발해연구』36(고구려발해학회, 2003), pp. 545-583; 李仁哲, 「德興里壁畫古墳의 墨書銘을 통해 본 고구려의 幽州經營」, 『역사학보』158(歷史學會, 1998), pp. 1-29; 林起煥, 「4세기 고구려의 樂浪·帶方地域 경영: 안악3호분·덕흥리고분의 墨書銘 검토를 중심으로」, 『역사학보』147(歷史學會, 1995), pp. 1-45; 정호섭, 「高句麗 壁畫古墳의 銘文과 被葬者에 관한 諸問題」, 『고구려발해연구』36(고구려발해학회, 2010), pp. 37-70.

웠으며, 따라서 그 가치도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였다. 비록 내용면에서 목서가 어느 정도 묘지명과 유사한 부분이 있고, 또 그 탄생이 묘지명의 발달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제작방식과 형식으로부터 글이 지시하는 대상의 신분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점은 더욱 많다. 결정적으로 목서는 벽화와 동반 출현하고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 묘지명과 구별된다. 따라서 목서는 묘실 벽화의 종속물로 연구되어야 하며, 그 의미도 벽화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간과되어온 묘실 내 목서의 기능과 의미를 탐구한다. 목의 특성상 항구성이 떨어지는 목서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장례 기록물로 존속하였는지, 기록 보존의 기능을 넘어서는 목서 제작의 특별한 목적은 없었는지 생각해보려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송대(北宋代) 이후 원대(元代)까지 묘실 목서는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된다.² 위진(魏晉) 시기 이후 벽화묘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목서가 북송 말엽에 다시금 성행하게 된 배경도 독특하지만, 내용과 형식면에서 중세 이전의 목서나 묘지명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북송과 금(金) 시기를 중심으로 묘실 벽화 속 목서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묘실 내에서의 기능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한다. 나아가 묘실 벽화의 장식 이미지와의 관련성 속에서 목서를 지시대상의 정보를 담은 기록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시각문화의 산물로 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북송 · 금대 묘실 목서와 제작 배경

묘실 내 목서의 발생과 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목서와 여러 면에서 가장 깊은 관련성을 보이는 묘지명의 발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장속(葬俗) 중 사자의 정보를 담은 묘지명 매납의 기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이것이 한대(漢代)에 발달하였다는 사실에는 학자 간의 이견이 없다.³ 사자의 행적을 기록하고 공덕을 칭송

² 중국 송·금·원 시대의 목서 제기(題記)를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趙冉, 「宋元墓葬中榜題 題記研究」, 『南方文物』1(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pp. 87-94; 鄧菲, 「試析宋金時期磚雕壁畫墓的營建工藝」, 『考古與文物』1(陝西省考古研究所, 2015), pp. 71-123. 원 묘실 벽화 목서는 스타인하르트(Steinhardt)에 의해 집중 연구된 바 있어 본 논문에서는 북송과 금대의 예에 초점을 맞춘다. Nancy Steinhardt, "Yuan Period Tombs and Their Inscriptions: Changing Identities for the Chinese Afterlife," *Ars Orientalis* 37(2009), pp. 140-174.

³ 중국에서의 묘지명의 기원과 변천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남종진, 「中國墓誌銘 起源考」, 『중국어문학논집』26(중국어문학연구회, 2004), pp. 699-721; 朴漢濟, 「魏晉南北朝時代 墓葬習俗의 變化와 墓誌銘의 流行」, 『東洋史學研究』104(동양사학회, 2008), pp.

하기 위해 제작되어 지상에 설치되던 묘비가 위·진대에 금비령(禁碑令) 등의 제약을 받으며 묘 내 매납품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부장품으로 정착하였다는 것이다. 묘지명에 쓰인 문장은 매납 이후 외부에서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법제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이었으나 선호되는 형식은 분명 존재하였고, 이후 독자적인 문학의 분야로 발달하면서 제문의 규칙이 생겨났다. 그러나 묘지명의 전형을 탈피한 다양한 문자 기록물 또한 피장자의 기호나 지역풍속에 의거하여 끊임없이 제작되는데, 이들은 시대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묘제의 사회적 구속력이 약한 경우 더욱 다채로운 모습을 보인다.⁴

기능면에서 묘지명과 여타의 매장 문자 기록이 관련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묵서 또한 묘지명에서 파생된 기록물의 형태가 아닌가하는 의심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일정한 형식과 분량을 전제하는 묘지명과는 달리, 묵서는 대부분 벽화 장인들에 의해서 간단한 기록의 형식으로 묘 벽에 남겨졌다.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는 단순히 기록 매체를 달리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만은 아니다. 그보다도 문자 제작자의 묘실 내 기록물에 대한 태도 변화를 전제한다. 말하자면 묵서는 그 제작에 있어 재료를 다듬는 수고, 예를 들면 글씨 쓰일 석재를 마련한다든가 저명한 문장가나 명필가, 조각가를 섭외할 필요가 없었다.⁵ 이는 묵서 기록을 의뢰한 주문자, 즉 장례 주관자가 의뢰의 마지막 과정이자 정점이라 볼 수 있는 분묘 마련과 시신 매납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한 결과로 생각된다. 즉, 묘지명 제작의 생략이나 매납 기록물의 간소화는 그만큼 분묘 주문자가 예식과 법도로부터 자유로운 계층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북송시대부터 금대까지 축조된 중국 중원지역⁶의 벽화묘에서

37-83; 同著, 「魏晉南北朝-隋唐時代 葬俗・葬具의 變化와 墓誌銘」, 『韓國古代史研究』75(한국고대사학회, 2014), pp. 5-55.

⁴ 무덤 벽에 사자의 정보를 기록하는 묵서가 등장하는 것은 동한 시기부터이며 위진 시기에 그 제작이 증가하는데 이는 매납 묘지명의 발달 양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묵서의 증가가 벽화 묘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인지 묘지명 매장 문화의 보편화로 인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묵서와 매납 묘지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⁵ 후한대 이후 후장(厚葬)은 후손의 효심을 평가하는 주요한 척도로 자리 잡았다. 유교사회에서는 효의 덕목이 관리채용이나 승진의 기준이 되어 후장이 더욱 유행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은 장례에 소용되는 모든 물품을 구비하는데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으며, 장례가 끝나고 파산하고 거지나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후한대부터 위진남북조시대를 거쳐 송대의 기록에도 언급된다. 박한제, 앞의 책(2008), p. 42, p. 59; Susan Naquin, "Funeral in North China", *Death Ritual in Late Imperial and Modern China*(Berkeley and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pp. 37-70; 우홍, 김병준 역, 『순간과 영원: 중국고대의 미술과 건축』(아카넷, 2003), pp. 449-589.

⁶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중원의 도시들은 허베이 성 남부, 허난 성 북부, 산시 성 남부와 산둥 성 일대에 속하며 공히 황하의 중하류에 분포한다. 대부분의 도시가 당말 이후 내륙 수운과 해운으로 개선된 유통 환경의 수혜지역이었다. 또한 북송 이후로 이 지역에 통속적 이미지로 장식된 소규모 벽화묘가 대량 축조되었다. 중원지역 송·금대 장식묘의

목서가 재등장 하는 것도 벽화묘로 대표되는 후장(厚葬)을 선호한 계층의 신분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북송 이후 중국에서는 도시 사회 변형을 배경으로 성장한 계층, 즉 중간계급⁷이 사회 중심세력으로 떠오른다. 이들은 도시나 경제적으로 도시 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지역에서 전매업, 고리대업, 부동산업 등 도시 내 다양한 서비스 및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사적 재화를 축적하여 자본권력을 거머쥐었으며 연극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문화예술의 후원자로 활동하였다. 한편, 이 시기는 신유학의 유행과 더불어 가례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때로, 중간계급 사이에서는 예식을 통해 지역사회 새 권력자로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인하고자하는 열망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로 실내를 벽화로 화려하게 장식한 무덤이 명망 높은 가문의 상징처럼 인식되며 유행하기 시작한다. 늘어난 벽화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지역 단위로 활동하는 공방이 늘어났고 이들에 의해 획일적 형태와 장식을 보이는 벽화묘가 다수 제작되었다.⁸ 벽화묘의 증가는 벽화와 동반하는 목서의 증가를 야기하였다.⁹

북송 이후의 이 새로운 벽화묘 주문자들의 특성은 무덤 속 묘지명의 유무를 포함한 묘제의 변화에서 가장 먼저 감지된다. 우선 이들의 묘에서는 묘지명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 매지권(買地券)이 매장되거나 벽화 안에서 목서가 남겨진다.¹⁰ 동시대에

지역적 특성 등에 대해서 본 연구자의 선행 연구 참고할 것. 지민경, 「北宋·金代 裝飾古墳의 소개와 기초 분석」, 『美術史論壇』33(한국미술연구소, 2011), pp. 204-216.

⁷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중간계급은 북송 이래 개봉과 낙양 등 중원의 도시지역에서 경제자본을 기반으로 성장한 신흥 부유층을 일컫는다. 역사학계에서 이들을 특별히 중간계급으로 정의한 바는 없으나 이미 수많은 송대 경제사와 유관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이 계층의 특수성을 주목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을 지칭하기 위해 유사 개념의 사회학 용어인 '중간계급(middle class)'을 차용하였다. 송대 중간계급 정의와 이들의 예술 참여 상황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를 참고할 것. 지민경, 「중국 근세 시각문화에서의 이미지 생산과 소비 - 磁州窯系 瓷枕을 중심으로 -」, 『한국도자학연구』13(한국도자학회, 2016), pp. 107-136.

⁸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목서가 발견된 북송시대부터 금대까지의 벽화장식의 단상 전축분은 중원 도시지역 중간계층에 의해서 애호된, 시대와 지역, 계층 특정적 특수 형태의 장식고분이라 볼 수 있다. 북송·금대 소규모 벽화묘 형식과 특징에 관해서는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 참고할 것. 지민경, 「10-14세기 동북아 벽화고분 예술의 전개와 고려 벽화고분의 의의」, 『미술사연구』25(미술사연구회, 2011), pp. 69-70.

⁹ 한편, 개별의 주문자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닌 공방의 규정된 제작 과정에 의거해 벽화묘가 제작되기 시작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북송·금대 벽화묘의 건축과 장식의 전반에서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벽화묘 제작 방식의 변화는 무덤 내 목서 제작 방식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본다.

¹⁰ 전한(前漢) 이후로 발달한 매지권은 민간신앙 특히 도교적 신앙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자가 묻힌 토지를 지하세계 신들로부터 구입했음을 증명하는 가공의 문서이다. 영혼의 토지 점유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상징적인 토지구입 액수를 기입하거나, 지하세계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미신적인 주문을 적는 경우가 많다. 박한제, 앞의책(2014), pp. 24-25; 매지권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것. Valerie Hansen, *Negotiation Daily*

제작된 신분이 높은 이들의 묘에는 벽화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묘지명이 매납되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묵서나 매지권이 확인되는 묘주인의 사회적 신분은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북송·금대 벽화묘의 장식이 화려해지는데 반해 매납되는 부장품과 기록물의 양이 눈에 띄게 축소된다. 이러한 대비는 벽화묘 주문자들이 분묘 조성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던지를 보여준다.¹¹ 즉, 국가의 제도적, 사상적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중간계급은 장례에서 부장품의 종류와 개수, 배치 등으로 대표되는 엄격한 예법을 따르거나 조상의 위업을 문장으로 남겨 기념하기보다 화려한 분묘를 제작하여 조상에 봉헌하는 일을 더욱 중요시 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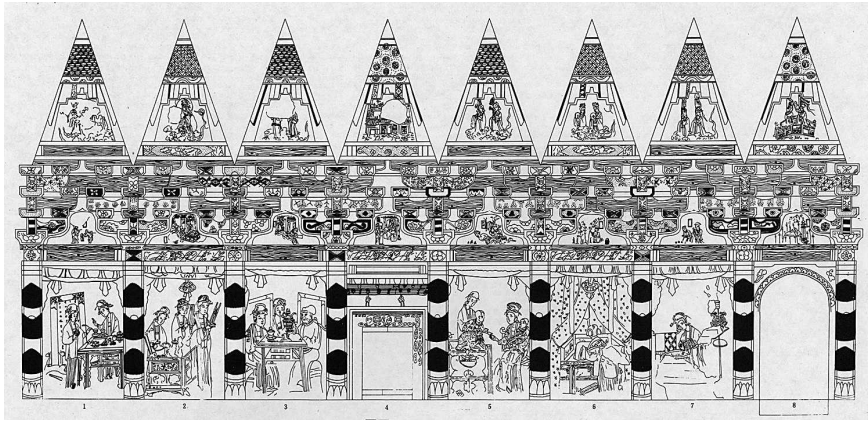
북송 이후 벽화묘 주문자들의 성향은 묘실 건축과 장식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된다. 무덤은 바닥 면적이 가로, 세로 각 2-3m 가량 되는 소규모 돔형 천장의 단실묘(單室墓)로써 벽돌로 축조한 묘실은 원형, 사각, 육각 혹은 팔각형을 보인다. 묘 벽은 그림 뿐 아니라 다양한 문양의 부조 벽돌이 적극 사용되어 화려하게 장식된다. 벽 장식에 보이는 이미지의 대부분이 동시기 공예품이나 건축물의 장식 문양, 대중적 공연예술인 잡극(雜劇) 장면 등과 겹치는 점은 또한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당시 시장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통속성을 띠는 장식 이미지가 상품화 되어 유통되었는데, 벽화의 주요 모티프가 그러한 이미지로 대체 된 것은 변화된 벽화묘 주문자의 취향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후술할 부(富)를 향한 갈망이 드러나는 이미지들은 벽화묘 주문자들이 중요시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일례로 북송대 벽화묘인 허난 성(河南城) 덩펑(登封) 묘를 살펴보자. 벽화와 부조벽돌로 묘사된 이미지는 철저히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부호(富豪)의 일상 장면을 그리고 있다 도 1.¹² 이는 묘주의 실제 삶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벽화에 나타난 이미지가 묘주들의 꿈, 즉 많은 부를 축적한 중간계급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는 추측은 부호의 삶을 묘사한 당시의 기록으로 뒷받침된다. 북송대 문인인 심괄(沈

Life in Traditional China: How Ordinary People Used Contracts, 600-1400(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5), pp. 149-188.

¹¹ 사마광(司馬光, 1019-1086)으로 대표되는 당대의 유학자들은 이처럼 장례에서의 사치 풍조가 나날이 심해짐을 걱정하였고 벽화 장식 뿐 아니라 그림, 예를 들면 초상화를 부장하는 하는 행위조차도 예법에 어긋나는 천박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신흥 부가(富家)는 전통적 예법이나 유교적 규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으며 사치스러운 분묘 제작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재화를 들여 조상의 분묘를 마련하는 것은 효의 표현이며 가문의 자랑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李紅, 「宋遼金時代의 墓室壁畫」, 『中國美術全集 繪畫編』12: 墓室壁畫(北京: 文物出版社, 1989), p. 35-50; Patricia Ebrey, *Confucianism and Family Rituals in Imperial China: A Social History of Writing about Rit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p. 96.

¹² 鄭州市文物考古研究所·登封市文物局, 「河南登封黑山溝宋代壁畫墓」, 『文物』10(文物出版社, 2001), pp. 60-66.



도 1. 묘실전개도, 黑山溝北宋墓, 宋北, 河南省 登封

括, 1031-1095)의 『몽계필담(夢溪筆談)』 〈인사(人事)〉에 수록된, 송대의 문인이며 시로(詩老)로 불렸던 석연년(石延年, 994-1041)의 일화가 그 대표적인 예다.¹³ 석연년의 이웃에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젊은 부호가 살고 있었다. 마침 술을 좋아하는 석연년에 호기심을 느낀 부호가 그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게 된다. 이에 석연년은 초대되어 간 부호의 집에서 열린 연회를 묘사하는데, 이때 나오는 장면이 북송대 이후 묘실 벽화에 등장하는 장면들과 거의 일치한다. 예를 들어 시녀들이 음악연주로 연회의 흥을 돋우고 요리와 술을 대접하는 방식이 그러하다.¹⁴ 장면 묘사 외에도 자신을 초대한 부호에 대한 석연년의 태도는 당시 부자들에게 대한 세간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단서이다. 석연년은 이 부호 덕에 진기한 경험을 했음에도 그 초대를 몹시 불만스럽게 여겼는데, 이유는 그 부자 주인의 언행에 예(禮)가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특히 의관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자신을 맞이하였고 배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석연년은 몹시 불쾌해 하였다. 그리하여 석연년은 그 부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촌평을 하기에 이른다.

“저 부자는 참으로 무지하고 무식하며 바보임이 틀림없어 아마 콩과 보리도 구별

¹³ 심괄, 최병규 역, 『몽계필담』(상)(범우사, 2002), pp. 168-170.

¹⁴ “심여 명의 여자들이 제각각 음식과 악기를 들고 들어왔는데, 그 복식은 물론 미모가 매우 뛰어났다. 한 여자가 술을 따라 바치고 그 술을 다 마시면 음악을 연주하였으며, 다른 여자들은 음식과 안주를 든 채로 두 사람 앞에 대령 해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음식을 다 먹고 나면 그들 좌우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경성의 사람들은 그들을 '연반(軟盤)'이라고 불렀다.(· · · 有群妓十余人 各執肴果樂器 粧服人品皆艷麗粲然。一妓酌酒以進 酒罷樂作 群妓執肴果者 萃立其前 食罷則分列其左右 京師人謂之「軟盤」)” 沈括, 『夢溪筆談』 卷九 〈人事 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호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괴이하기만 하다.”¹⁵

“옛 사람들은 '전치(錢癡)'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확실히 그런 자들이 있다.”¹⁶

사실 석연년은 구양수(歐陽脩, 1007-1072)를 비롯한 당대 유명인사들과 어울린 시인이자 서예가이며 술을 유별나게 좋아한 기인(奇人)으로 유명했을 뿐, 사회적 지위로 따지면 과거시험에 거듭 낙방하고 미관말직 하나를 겨우 얻은 보통의 문인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가 특별히 부자로부터 예를 갖춘 대접을 기대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¹⁷ 게다가 세평에도 석연년이 재물을 탐하거나 예법에 얽매이는 인물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는 『몽계필담』에 소개된 석연년의 언행과는 일치하지 않는다.¹⁸ 한편 『몽계필담』에서 저자인 심팔이 직접 겪은 일 보다는 주로 전해들은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다는 데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의 허구성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석연년의 일화에서 부호의 집에서 열린 연회장면은 사실에 입각한 묘사이기 보다는 당시 세간에 비친 호화로운 삶의 전형적 이미지이며, 석연년의 평은 부자들에 관한 일반적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결국 석연년이 자신을 초대한 부자를 전치, 즉 돈만 아는 바보라고 비난하면서도 어떻게 그토록 호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궁금해 하는 모습에서 당시 갑작스레 부를 쌓게 된, 관직이 없는 중간계급들이 존재하였고, 그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과 시샘의 대상이었던 상황이 엿보인다.

위와 같이 북송 이후 벽화묘의 건축과 장식에서 감지되는, 묘주의 신분계층 상의 특수성과 취향은 묵서와 매지권의 형식과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매지권과 묵서 글의 형식을 살펴보자. 매지권의 경우 부장품이라는 점에서는 묘지명과 동일하지만, 그 안에 담기는 글은 묘주의 업적과 가문의 위세를 칭송하는 전통적인 묘문(墓文)이 아닌 사자의 신변과 매장 과정을 간단히 토지신에게 고하는 글이다.¹⁹ 묵서도 문장의 기본적인 형식면에서 매지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대신 그 대상이 토지신이 아니기 때문

¹⁵ “曼卿言 豪者之狀 懵然愚騃 殆不分菽麥 而奉養如此 極可怪也。” 沈括, 앞의 책.

¹⁶ “古人謂之「錢癡」 信有之” 沈括, 앞의 책.

¹⁷ 『宋史』 卷四百四十二, 「列傳」 第二百一, 〈文苑 四〉; 廖蓋隆, 『中國人名大詞典: 歷史人物卷』(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0).

¹⁸ 석연년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다수 전하는데, 예를 들어 구양수의 『귀전록(歸田錄)』을 보면, 석연년이 유잠(劉潛)이라는 사람과 도성의 주점에서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태연하게 집에 돌아갔다고 한다. 歐陽脩, 강민경 역, 『歸田錄』(학고방, 2008), pp. 217-218.

¹⁹ 주 6) 참조.

에 매장의 당위성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에 대한 설명 등은 생략되어있다. 일부 장문의 묵서는 ‘세차(歲次)’ 혹은 유사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보여 제사 축문을 옮겨놓은 듯한 예도 있다 도 2.²⁰ 한편, 매체 특성상 길이의 제약을 받는 매지권과 달리 벽에 쓰이는 묵서는 간략한 사자의 정보 뒤로 다양한 유형의 글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도 2. 묵서 제기(題記), 南五里村宋墓 통로 서벽, 1085, 山東省 萊州市

이처럼 자유로운 형식과 더불어 내용의 풍부함과 다양함이 북송·금대 벽화묘 묵서가 지니는 특징이다. 이전 시대의 묘지명이나 묵서와 비교하여 눈에 띄는 내용상의 변화는 세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사자의 존재감은 줄어드는 대신 가족관계 사항과 복록에 대한 기원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 당시 물가에 대한 기록이나 당시 세태에 대한 기록이 빈번히 등장하는 점, 세 번째는 벽화묘 제작에 참여한 장인들, 즉 벽돌 제작자, 분묘 축조자, 벽화 제작자의 정보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다.²¹

위에서 언급된 묵서의 변화된 내용 모두 묘주와 관련성이 적어 그 기록 이유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 특히 허난 성 신안(新安) 현의 송사랑묘(宋四郎墓)나 산시 성(山西省) 허우마(侯馬) 동명묘(東明墓)에서 발견된 지갈(地碣) 등에서 확인되는 세번째 유형의 경우는 그 존재 자체가 의아하다 도 3.²² 물론 장인의 이름이 장례 기념물에 남겨지는 것이 이 시대에 처음 목격되는 현상은 아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미 후한(後漢, 25-220)대 무량사의 석각에 사당을 축조한 장인들의 신상이 전하고, 산둥 성(山東

²⁰ ‘유세차(維歲次)’란 ‘이에 간지(干支)를 따라서 정한 해로 말하면’의 뜻으로, 제문(祭文)의 첫머리에 쓰는 관용어이다. 국립국어원 표준어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

²¹ 묘실 묵서를 통해 북송·금대 벽화묘의 제작 과정을 추적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것. 鄧菲, 앞의 글(2015), pp. 71-123.

²² 각 지갈에 적힌 글과 이에 대한 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다. “宋四郎 家外宅墳 新安縣里郭午居住 磚作賈博士 劉博士 庄住張窯 同共砌墓 畫墓人楊彪 宣和捌年貳 月初一日大葬記.”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洛陽古代藝術博物館, 「新安縣石寺李村北宋宋四郎磚雕壁畫墓測繪簡報」, 『故宮博物院院刊』1(北京: 故宮博物院, 2016), pp. 71-161; “時明昌柒年捌月初四日捌入功 九月日功畢砌 匠人張卜楊卜段卜敬卜 寫地碣人郇口堅 丙辰己亥有一遷哥樓喜.” 山西省考古研究所, 「山西稷山金墓發掘簡報」, 『文物』1(1983), pp. 45-63; 『平陽金墓磚雕』(太原: 山西人民出版社, 2002), p. 321.



도 3. 묘 입구 편액과 세부 이미지, 李村宋四郎壁畫墓 1호묘, 1126, 河南省 新安縣

省) 창산(蒼山) 서부에 위치한 후한대 석실 분묘 내 명문(銘文)은 분묘 축조자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고 한다.²³ 그러나 한과 송의 시기적 차이와 명문과 묵서 문장의 상이성 때문에 이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묵서의 특정 형식이나 내용의 기원은 차치하고, 오

히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상기 내용을 전하는 데에 있어 왜 묵서나 묵서와 유사한 간이 형태의 기록물이 선호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묵서는 예법에 의거한 사항도 아니었을 뿐더러 사자의 일생을 기념할 목적이었다면 충분히 별도의 부장품에 기록할 수도 있었다. 묵서에는 과연 단순 기록물 이상의 의미는 없었던 것일까?

III. 묵서의 유형과 배치

북송대 이후 묘벽 묵서의 기입 목적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묵서의 기입 방식과 배치를 살펴보겠다. 북송·금대 벽화묘의 묵서는 이전 시대 벽화묘에서 발견되는 묵서와 비교해 볼 때 내용뿐만 아니라 벽화 내의 위치가 크게 달라진다. 본래 묘실 벽화의 묵서는 대개 묘주 초상이나 묵서가 지시하는 인물 혹은 대상의 이미지에 가깝게 적히며 이미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도 4}. 그러나 북송·금대 벽화에서 묵서의 위치는 일정치 않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북송·금대묘 묵서의 유형과 내용이 다양해지면서 이미지와 반드시 일대일의 관계를 맺지는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묵서는 배치에 있어 필연적으로 벽화 이미지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근거하여 묵서와 이미지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묵서의 묘실 내의 의미 변화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묵서의 내용과 묵서의 묘 벽 내 위치는 관계가 있는지, 또 주변의 이미지와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우러지는지 등이 우선 고찰 대상이 된다.

²³ 우홍, 앞의 책(2003), pp. 560-589.



도 4. 〈연음도(宴飲圖)〉와 묵서, 塔梁子崖墓 3호묘, 東漢, 四川省 中江

북송·금대 벽화묘에서 발견되는 묵서의 분량은 짧게는 열 자 이내부터 400-500여 자에 달하기도 하는데, 짧은 묵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묵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의 묘지명의 계통을 이은 묵서의 경우 사자와 배우자에 관한 정보, 즉 성명, 생년일시(生沒日時)와 고향 및 생시에 역임했던 관직(하급 관직명이 주요하나 심지어 그 초차 거짓인 경우가 많았다) 등이 간략히 언급되며 시작한다.²⁴ 주목할 점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묵서에서 묘주 정보보다 중요시되는 부분이다. 즉, 자손들의 정보 나열로부터 누가 분묘 건축에 참여했고 (주로 금전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언급되며 자손들의 효행에 대한 찬양, 끝으로 후손들의 안녕을 바라는 축원이 이어진다.²⁵ 한편,

²⁴ 묘지명은 사자의 전기 부분인 지(誌)와 그의 공덕을 칭송하는 명(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구조는 한대 이후 유행한 묘비명의 양식을 따른 것이다. 지에는 구체적으로 본명, 자(字), 성씨(姓氏), 출신지, 가계(家系), 성품과 행실, 이력사항, 사망일, 향년, 가족관계, 장례일, 장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 전기 부분에 드러나는 수사법은 이후 수·당대에 문학으로써의 묘지명의 장르가 발달하는 데 바탕이 된다. (중간계급 이하가 묘지명을 별로 쓰지 않았을 뿐) 사자의 전기를 강조하는 묘지명은 송대에 더욱 많이 쓰였고 지의 분량도 늘어났다. 박한제, 앞의 글(2008), pp. 69-72.

²⁵ 사자보다 후손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은 묵서 외에도 다양한 복록을 축원하는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표현하였다. 이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것. Christian De Pee, "Material Ambiguity and the Hermetic Text: Cities, Tombs, and Middle Period History," *Journal of Song-Yuan Studies* 34(2004), pp. 81-94.



도 5. 묘실 서벽 벽화(부분),
大官庄壁畫墓, 金, 山東省 濟南



도 6. 남벽 입구 묵서명,
小關村金代壁畫墓, 1174, 山西省 長子縣

묘지명 계통이 아닌 묵서에서는 묘주나 자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내용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 경우 대체로 주변의 이미지가 묵서 해석의 단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깊이 관련된다. 벽화 이미지와의 관계, 문장 내용과 유형에 따라 묵서는 또다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가장 전통적인 유형의 묵서로 벽화 이미지에 종속되어 나타나는 묵서이다. 예를 들면, 병풍 그림 속 시문(詩文)이나 서사적 이미지의 설명문, 각종 기물 표면에 쓰인 명칭, 묘주인을 나타내는 성씨(姓氏)나 가명(家名),

직위 등을 들 수 있다. 인물 혹은 기물의 명칭 위주의 묵서는 이전시대 묘실 벽화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유형이나, 송금대 벽화에서는 일부 이 유형의 묵서가 기물 이미지 위에서 발견되어, 마치 본래 기물 위에 적힌 글자를 옮겨놓은 듯 보이기도 한다 도 5.

둘째는 묘문이나 벽화 구석에 매장 시점을 중심으로 간단히 남겨진 묵서이다. 이 유형의 묵서는 년호(年號)와 일시를 위주로 쓴 것으로, 이는 무덤의 제작 년대를 파악할 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보통 벽화의 화면 구성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쓰여, 벽화와 가장 적은 관련성을 갖는다. 이처럼 맥락 없이 기입된 년호 묵서는 사자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닌, 장례일시와 묘실의 제작 일시를 기록하는 일종의 머릿돌의 기능을 하고 있다 도 6.

셋째는 벽화의 중심 부분 혹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먹선의 틀을 마련하고 그 안에 써진, 비교적 긴 분량의 묵서이다. 대표적으로 이십사효자고사도와 같은 서사 이미지 옆에 해당 장면의 내용을 설명하는 묵서와 도 11 참고 집안 곳곳에 매달린 편액과 같은 형태의 틀 안에 쓰인 묵서가 있다. 편액의 틀은 비교적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안에 적힌 묵서는 다른 유형보다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 7.

묵서가 배치된 장소는 이처럼 다양하고 그 장소에 따라 묵서의 형식이나 내용도 다르지만 이들 사이에 공통점 또한 발견된다. 이를테면 글의 내용과 묘주의 개인사와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대신 묵서의 시각적인 효과가 강조되는데, 문자들은 전체 벽화의



도 7. 묘실 동벽 벽화, 康庄工業園區壁畫墓, 元, 1276, 山西省 屯留

구성을 침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른 이미지 사이에 녹아든다는 점이 그것인데 도 7의 예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북송대 이후 대부분의 목서가 벽화 제작 과정의 일부로써 제작자의 관점에서 쓰이고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후술하겠으나 형식과 내용으로 추측컨대 벽화묘 주문자는 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벽화 속 목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은 듯하다. 그렇다면 기능 이상으로 벽면을 가득 채우며 장황하게 서술된 목서들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IV. 기록인가 이미지인가?: 목서 제작 행위와 시각성 재고

목서의 제작 주체가 분묘 주문자가 아닌 제작자라면 지금껏 논의 되어온 목서의 기능과 의미는 재고되어야 한다. 앞장에서 북송·금대 묘실 벽화의 목서는 제작자의 제작 행위의 결과물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제작자에게 있어 목서는 정보 전달을 위한 기록이 아닌 시각적 상징물, 즉 이미지와 유사하게 취급되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 이미지 생성과 제작에 관여하는 두 주요한 요인-첫째 제작자의 경험과 지식 표출, 둘째 주문자의 취향 혹은 사회 반영-를 목서의 형성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지 알아보려한다. 이번 장에서 각각의 요인을 묵서와 이미지 제작 행위 간 유사성 측면과 이미지로서 묵서가 지니는 시각성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해보겠다.

1. 행위성 측면



도 8. 묵서명 “元符二年趙大翁布”, 白沙宋墓
1호묘실 벽화, 1099, 河南省 禹縣

벽에 묵서를 쓰는 일상적 행위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행위와 관련된다는 것은 즉시적으로는 이미지 속에 표현된, 그리고 이미지화 되어 표현된 묵서의 흔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앞서 III장에서 언급한, 첫 번째와 세 번째에 속하는 묵서의 예를 살펴보자.

1099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허난 성 위(禹) 현 백사송묘(白沙宋墓)의 벽화에서 “元符二年趙大翁布”의 문구가 발견되었다²⁶ 이 문구는 포대 이미지 위에 쓰여, 해당 기물이 무엇인지 또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를 알림과 동시에 벽화가 그려진 시점의 어느 날을 표시한다. 포대 이미지는 묵서를 적기 위한 틀로써 기능하는 한편, 글자가 쓰인 포대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묵서만 보면 왜 묘주의 이름과 날짜, 기물의 이름을 같이 적어 넣었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포대 이미지와 함께 보면 이 문구가 뜻하는 바를 짐작해볼 수 있다. 당시 생산·소비 경제의 발달로 시장에서 다양한 물건이 거래되었는데, 물건에는 주문자나 생산자의 이름, 생산 시기와 내용물의 이름을

적는 경우가 많았다.²⁷ 표면에 내용물의 이름이나 생산자명이 로고 형태로 적힌 기물이 주문 생산되었고 도 9, 와당과 같은 건축 부재 등에도 장인의 이름과 공방명(工房名)이 표시되었던 사실로 볼 때 당시 이름과 명칭 등이 적힌 물건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던 것 같다.²⁸ 그렇다면, 백사송묘 벽화 장인도 기물의 그림을 그릴 때 자연스럽게

²⁶ 宿白, 『白沙宋墓』(北京: 文物出版社, 2002) 참조. 묵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대옹(趙大翁)’ 석자는 묘주를 지칭한 듯한데, 기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지시하는지 불명확하다. 宿白은 이 기년을 묘주가 사망한 해로 이해하고 있다.

²⁷ 이와 관련하여 송·금·원 시기 자주요계 자침에 나타난 명문(名文)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것. 지민경, 앞의 논문(2016), pp. 107-136.

²⁸ 낙양의 당·송대 건물터에서 발굴된 명문 와전(瓦甄)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唐城隊, 「河南洛陽市唐宮中路宋代大型殿址的發掘」, 『考古』3



도 9.澄泥硯의 뒷면과 세부 이미지, 東龍觀 5호묘 출토, 金, 1195, 汾陽市博物館

게 이처럼 문자와 로고가 표시된 일상의 기물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북송대의 도시 생활풍속을 묘사한 청명상하도의 장면에서도 유사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그림 속에서 상점의 이름을 내건 가게와 포대 형태의 짐을 열심히 실어 나르는 짐꾼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도 10. 그림 속 상점이 실제 존재했는지 불확실하지만, 다양한 상점명이 등장하는 것은 그 시대 그만큼 활발했던 시장을 통한 물품 유통상황을 보여준다. 그 중 포대는 시장에서 거래 되는 물품을 대표하는 이미지였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백사송묘 목서에 나타난 기년의 정확한 의미는 여전히 알 길이 없어도 최소한 목서의 ‘조대옹’은 묘주와 관련 없는, 당시 유명한 포목점의 상점명이거나 상인인 조대옹 자신이 취급하던 물건일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처럼 이미지와 목서의 조합은 기록과 기록을 위한 틀이 아닌 벽화 제작자가 일상에서 보아온 통상적인 기물의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예로, 산시 성 창즈(長治) 시 웨이(魏) 촌에서 발견된 금대 묘실 벽화에 보이는 설명문 형식의 목서를 살펴보자.²⁹ 목서는 병치된 효자고사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도 11. 이 목서의 경우도 벽화를 제작한 장인들의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실제로 묘실 안에서 이와 같이 긴 글귀를 읽을 사람이 없었을 것이기에 이처럼 장황한 서술이 이미지 옆에 병치된 이유는 명확치 않다. 그러나 내용이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9), pp. 37-42; 同著, 「河南洛陽唐宮路北唐宋遺迹發掘簡報」, 『考古』12(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9), pp. 45-53; 同著, 「河南洛陽中州路北唐宋建築基址發掘簡報」, 『考古』2(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05), pp. 41-53.

²⁹ 長治市博物館, 「山西長治市魏村金代崎紀年彩繪磚雕墓」, 『考古』1(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09), pp. 59-64.



도 10. 장택단(張擇端), 〈清明上河圖〉 부분, 北宋, 絹本淡彩, 24.8×527.8cm, 北京故宮博物院



도 11. 묘실 남벽, 魏村彩繪磚雕墓, 金, 山西省 長治市

아닌 형태, 즉 이미지 차원에서 목서의 그림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존재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벽화 장인들이 묘실 벽에 효자고사도를 그릴 때 참고했던 이미지에 것처럼 해설문이 동반되었을 예가 무엇이 있을지를 추측해 보는 것이다. 효자고사의 장면이 장의예술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한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와 같이 고사의 내용을 설명하는 글귀가 이미지와 같이 나오는 경우는 송대 이전에

는 거의 없었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간략하였다. 한편, 그림과 함께 설명문으로써 글이 함께 보이기 시작한 것은, 당말 이후 인쇄술이 발달하고 출판문화가 부흥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판각본 불교경전으로부터이다.³⁰ 이후 삽화가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서적이 대거 출판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대증서로 『효행록(孝行錄)』이 포함되어 있었다. 『효행록』에 포함되었을 삽화는 벽화 제작자와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 이미지 제작 시에 참고 할 만한 원본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묘실 벽화에 보이는 효자고사도와 긴 설명문의 조합은 글과 삽화가 연달아있는 책장의 느낌을 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북방본 효행록의 형성과 유행이 묘실 벽화의 이미지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³¹ 송대 이후 효자고사도는 중국 중원지역 묘실 벽화의 구성 이미지로 완전히 정착하는데, 이야기 장면의 개수와 내용까지 획일화 되는 경향은 대증서로서의 『효행록』의 제작과 출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묘실 묵서의 배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분묘 제작자들에게 묵서는 사자의 정보를 기록하는 목적보다도 자신들의 눈에 익숙한 장면들, 즉 묵서가 개입되는 시각적인 장면들을 재현해내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벽화 제작자들이 작업 시 참고했던 시각자료에 문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묵서가 묘실 벽화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단순히 결론내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제작자가 그림과 글자를 함께 제작하는 행위 자체에 익숙하지 않다면, 묘실 장식의 전례도 없고 시각적 효과도 약하며 이렇다 할 상징성도 없는 글자 부분은 쉽게 생략해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벽화 제작자에게 있어, 그림에 글을 덧붙이거나 벽에 묵서를 남기는 행위는 일상에서 체화된 익숙한 문화적 행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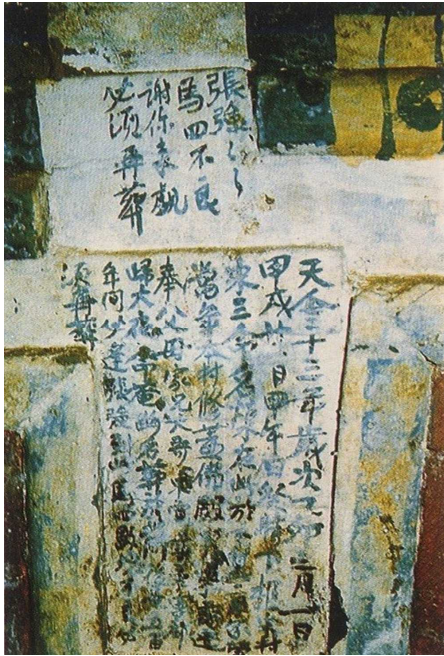
벽화 제작자가 묵서 제작 행위에 익숙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당시 벽에다 글을 쓰는 행위가 일종의 문화로 널리 인식되었던 사실로 뒷받침된다. 송대에는 관청이나 여관, 술집, 나아가 관광 명소 곳곳에 글을 쓰고 감상하는 풍조가 만연했던 것이다. 매체의 특성상 현전하는 유물은 없으나 수많은 문집과 필기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전하고 있다.³³ 특히 지체 높지 않은 문인들이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머무르던 여관방의 벽서는 그들의 우울하고 낭만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도구였다. 여관의 벽서를 남긴 사람이 출세를 하는 경우 곧 그 여관은 명소가 되어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한편, 여관과 같이

³⁰ 小林宏光, 김명선 역, 『중국의 전통판화』(서울: 시공사, 2002), pp. 10-32.

³¹ 김문경, 「고려본 『효행록』과 「이십사효」, 『제13차 중국학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한국중국학회, 1993), pp. 168-169.

³² 한편 북송의 소식(蘇軾, 1036-1101)을 중심으로 고취된 시서화일체론(詩書畫一體論)에 따라 그림과 서예, 시문이 융화되던 당시의 예술의 경향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³³ Cong Zha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and Community: Inn-Wall Writing During the Song (960-1279)," *Journal of Song-Yuan Studies* 35(2005), pp. 1-27.



도 12. 묵서명, 屯留宋村壁畫墓, 金, 山西省 屯留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장소에 쓰인 묵서는 감정의 표현 뿐 아니라 사회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통로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공간이 되었다고도 한다. 따라서 벽화묘 제작자가 묘 벽에 묵서를 남기는 행위는, 실제 생활 중에 그러한 벽서들을 접하면서 체득한 문화의 재생산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1999년도에 산시 성 툰류(屯留) 현 송(宋) 촌에서 발굴된 1135년 기년(紀年)의 금대 벽화묘의 묵서에서는 일상성이 관찰된다 도 12.³⁴ 서체와 문장이 정돈되지 않은 이 묵서는 제사 축문의 형식을 빌렸지만, 한편 형식에 맞지 않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온전한 축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자와 후손에 관한 정보의 분량은 적은 반면 만일의 도굴범들에 대한 저주문과 혼을 달래는 일종의 마술적 주문이 길게 이어진다.³⁵ 이에 더하여 북송-금 교체기의 역사적 사건이 언급되며, 당시 혼란스러운 세태에 대한 서술과 분묘 제작자의 개인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었다.³⁶ 내용의 통속성이나 서체와 문법의 비정형적 형식 등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묵서는 제

주(祭主) 보다는 문자적 지식이 얇은 벽화제작자가 임의로 써 넣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처럼 필요 이상으로 길고 장황하며 그 내용이 다소 엉뚱하기까지 한 이 시대의 벽화묘 묵서는 제작자가 피상적으로 이해한 문자의 남발을 보여준다. 즉, 과격적인 형식과 내용의 벽화묘 묵서는 당시의 특정 문화적 행위와 그에 따른 산물로 체화된 벽서(壁書)의 이미지적 재현으로 생각된다.³⁷

³⁴ 王進先·楊林中, 「山西屯留宋村金代壁畫墓」, 『文物』3(文物出版社, 2003), pp. 43-51.

³⁵ 송촌 벽화묘 묵서 원문(부록)의 5), 6)행 참조. 이 중 6)행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 더욱 어려운데, 마지막 줄의 ‘육임(六壬)’이라는 글자로 보아 점치는 문구로 생각된다. 육임은 일진과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점복의 한 방식이다. 王義印, 「山西屯留宋村金代壁畫墓墨書題記研究」, 『中原文物』6(河南博物院, 2014), p. 116.

³⁶ 부록의 2), 3), 4)행 참조. 이 묵서를 집중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王義印, 위의 글 (2014), pp. 113-118; 李浩楠, 「山西屯留宋村金代壁畫墓題記考釋」, 『北方文物』3(北方文物杂志社, 2010), pp. 76-78.

³⁷ 묵서로 가장 잘 알려진 글의 유형은 단언 제벽시(題壁詩)이다. 이를 연구한 지틀린(Zeitlin)도 논문에서 제벽시는 단순히 내용이나 시가 쓰인 장소 혹은 주제 등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시가 쓰이고 읽히고 또 수집되는 일련의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관

2. 시각성 측면

앞서 묵서는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묘실 벽화 장인들에게는 관습화된 행위이며, 다양한 환경에서 묵서를 남기는 일은 사적인 예술행위가 아니라 대중적인 문화행위였음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정말로 묵서가 기록물이 아닌 장인들의 제작 행위를 통해 벽화 속에 남겨진 일종의 이미지라면, 묵서의 시각적 효과 또한 논의 될 수 있는가? 또 그러한 시각적 효과는 벽화묘 제작자와 주문자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우선 묘벽 묵서가 동반 제작된 벽화 이미지와 시각적으로 혹은 의미적으로 연결됨을 밝혀야한다. 묵서 제작에는 필연적으로 참조되는 행위나 원본이 존재했음을 가정하고 그것이 일상의 시각적 자극, 나아가 당시의 시각 문화와 연관됨을 추론해 보도록 하겠다.

묵서를 포함한 묘실 벽화가 제작된 때 벽화묘 주문자의 엄격한 간섭은 없었는지라도 제작자에 의해 파악된 주문자의 취향은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제작자 뿐 아니라 벽화묘 주문자에게도 묵서에 관한 심상을 형성케 한 경험이 있었을 것임은 당연하다. 비록 당시에 벽에 묵서를 쓰는 행위가 유행했었고, 또 그 결과물이 내용이나 장소적으로 공공성을 띠기는 하지만, 이미지로써는 어떻게 대중적 파급력을 획득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묵서와 함께 그려지는 벽화의 이미지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나아가 묵서와 이미지의 결합지점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분석대상은 이미지와 묵서 관계가 가시적으로 파악되는 예들, 이를테면 그림과 그의 설명문으로써의 묵서의 조합 등을 제외한 여타의 이미지이다.

묵서와 동반 출현하는 묘실 벽화의 이미지에는 길상벽사의 상징성을 지니는 다양한 장식무늬를 비롯하여, 부가(富家)의 주거공간을 재현한 이미지와 그 안에서 여유를 즐기는 묘주의 모습이 포함된다. 앞서 『몽계필담』 속 석연년의 일화를 통해 분석하였듯, 묘실 벽화에 나타난 생활 모습은 사자와 그의 가문이 속한 사회에서 인정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 자체가 부귀와 영화를 상징한다. 그렇다면 벽화 속 묵서 또한 그러한 이미지와 함께 특정한 상징체계 속에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위와 같은 관점에서 벽화 이미지 중에 부귀의 상징성이 강한 모란 이미지를 묵서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겠다.

점을 수용하고 있다. 이 관점은 본 논문이 묵서의 행위성 측면을 강조한 점과 일맥상통한다. 묵서의 행위 측면을 조망한 제벽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것. Zudith T. Zeitlin ed., *Writing and Materiality in China: Essays in Honor of Patrick Hanan*(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pp. 73-132.



도 13. 남벽 상부 벽화, 白沙宋墓 3호묘, 北宋, 河南省 禹縣

북송·금대 묘실 벽화에서는 모란은 화분이나 화병에서 피어나는 모습, 또는 병풍이나 족자 속 그림으로 표현되며, 건축물의 장식 문양으로도 나타난다 도 13.³⁸ 당나라 이후로 그 감상과 애호 풍조가 확산된 모란은 공급이 제한적이기에 소수의 부유층만이 소유할 수 있었는데,³⁹ 송대 이후 대량 재배를 통해 모란의 상품화가 실현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이 꽃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⁴⁰ 그리하여 여전히 값비싼 모란을 실제로 구입하고 사적으로 즐기지는 못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모란의 상징성이나 그 가치를 인식하기는 어렵지 않게 되었던 듯하다.

목서가 이러한 모란 이미지 옆에 등장한다면 이 둘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하더라도 의미상 상충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서가 모란과 그 부귀의 상징성을 공유할 수 있었을지 추측해보자.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은 수많은 부가의 정원을 장식하고 있었다. 전통의 문화예술 중심지이던 낙양은 특히 모란산지로 유명했는데, 필기문집에 따르면 당시 낙양의 부호나 지체 높은 문인들 사이에서는 정원을 모란을 비롯한 다양한 꽃나무와 수석으로 장식하고 건물 벽이나 바위 등에 시구를 쓰고 즐기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한다.⁴¹ 모란이 만개하는 계절이 되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투어 모란꽃놀이를 다녔고, 부호들은 자신의 집과 정원을 모든 이에게 공개하여 함께 즐겼다고 하는데, 이 때 구경꾼들의 눈에 만개한 모란 사이에 보이는 시구나 글씨는 또 다른 부의 상징으로 느껴졌으리라 본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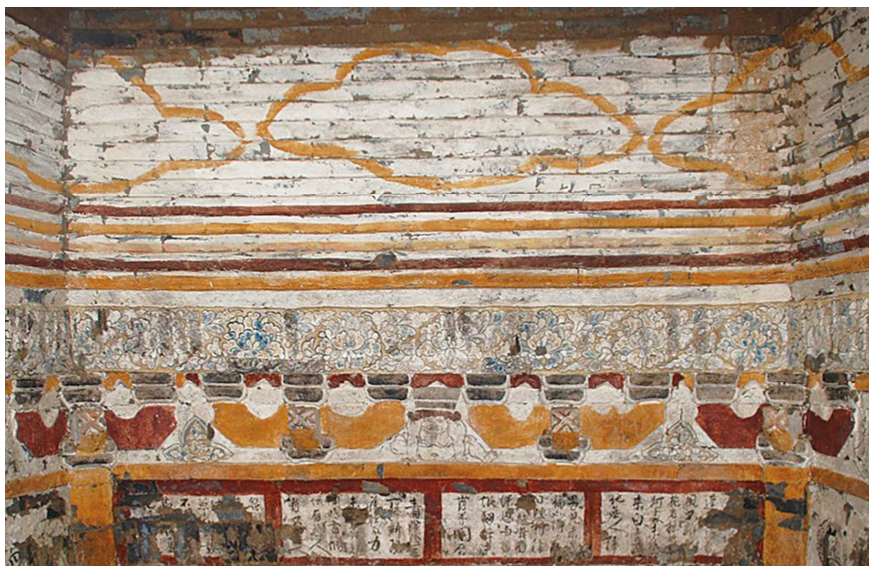
³⁸ 중국 오대 이후 묘실 벽화 속 모란도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것. 박은화, 「오대(五代), 遼, 北宋代 고분벽화(古墳壁畵)의 화조화(花鳥畵) 고찰(考察)」, 『中國史研究』91(중국사학회, 2014), pp. 77-122.

³⁹ 李思翥, 구린 역, 『중국기호사전』(서울: 토담미디어, 2013), p. 349.

⁴⁰ 살내 장식을 위한 모란과 작약 수요를 맞추기 위해 도시의 성문 밖에 모란 농업이 성행하였다고 한다. 孟元老, 김민호 역,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서울: 소명출판, 2010), pp. 231-233.

⁴¹ Christian de Pee, "Wards of Words: Textual Geographies and Urban Space in Song-Dynasty Luoyang, 960-1127,"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52(2009), pp. 85-116.

⁴² 대표적으로 구양수의 『낙양목단기(洛陽牧丹記)』에도 이러한 광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 "洛陽之俗 大抵好花 春時城中無貴賤皆插花 雖負擔者亦然. 花開時 士庶競爲遊遨 往往於古



도 14. 묵서 제사(題詞), 南五里村宋墓 묘실 북벽, 1085, 山東省 萊州市

이러한 상황은 보다 실제적으로 현실세계를 반영했을 묘실 벽화 속 모란과 묵서와의 관계에서 파악된다. 산둥 성 난우리(南五里) 촌 묘실 벽화가 대표적인 예이다.⁴³ 묘실 벽 상단에 그림으로 모방된 건축 구조물에 모란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그 아래 네모 틀 안에 쓰인 묵서가 보이는데 도 14, 내용은 송나라 위야(魏野, 960-1020)가 쓴 〈심은자불우(尋隱者不遇)〉와 당나라 호영능(胡令能, ?-?)의 시를 포함한 칠언절구의 시구이다 도 15. 내용과 형식, 벽화 속 배치 등으로 판단했을 때 이 묵서는 건축물에 걸린 시구 편액을 묘사한 듯 보인다.⁴⁴ 부호와 지체 높은 문인들의 정원에서 이와 같이 묵서와 모란이 어우러진 광경은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보조적 장치가 아닌, 보다 직접적으로 부귀를 상징하는 이미지로써 벽화속에 묵서가 사용된 경우도 있다. 시문이 적힌 병풍의 이미지가 그 예이다. 병풍 그림 속에 당시 유행하던 시구가 적히기도 하지만, 이러한 예는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병풍 이미

寺廢宅有池台處 爲市井張幄幕 笙歌之聲相聞. 最盛於月陂堤 張家園 棠棣坊長壽寺東街與郭令宅 至花落乃罷.” 歐陽脩, 『洛陽牧丹記』, 第三 〈風土記〉.

⁴³ 烟台市博物館, 「山東萊州南五里村宋代壁畫墓」, 『文物』2(文物出版社, 2016), pp. 4-20.

⁴⁴ 집안에 편액을 걸고 글씨를 게시하는 일은 반드시 부잣집이나 지체 높은 가문에서만 행해졌던 것만은 아닌, 상당히 보편화된 문화적 관습이었던 것 같다. 기록에 따르면 북송의 수도 변경(汴京)의 시장에는 매일 향과 인쇄물을 공급하던 고정적인 점포가 있었고, 이 점포에서 시절에 맞추어 집에 붙이는 편액과 불상 그림을 인쇄해 제공하였다고 하였다. 孟元老, 앞의 책(2010), p. 150.



도 15. 묵서 제사(題詞) 세부, 南五里村宋墓 묘실 북벽, 1085, 山東省 萊州市



도 16. 〈시봉도(侍奉圖)〉, 登封箭溝壁畫墓 서남벽 벽화, 북송, 河南省 登封縣

지 속 문자는 글자의 형태만 모방하였다 도 16. 특히 글자를 식별할 수 없는 문자병풍 이미지는 근본적으로 벽화 제작자의 시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스꽝스럽지만 이처럼 굳이 문자를 표현해내려 한 것은 왜인가?

내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도 제작자는 최소한 당대에 가장 유행하는 이미지와 그 이미지의 사회적 의미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문자의 표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당시 문자는 소통과 표현의 수단을 넘어 지식 권력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소유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졌다.⁴⁵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문자를 비롯하여 문자를 담아내던 다양한 매체들, 대표적으로 병풍과 같은 것까지도 상류사회나 지식계급의 고급문화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었고, 또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은 문자와 문자를 담아내는 물건의 이미지는 그림의 소재로, 각종 공예품의 장식으로 등장하며 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당시 계층을 막론하고 문자병풍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었던 기록과 함께, 글씨와 그림을 파는 시장이 존재했음을 보

⁴⁵ 수많은 북송·금대 벽화묘에 묘사된 서예병풍 이미지가 이와 같은 당시의 문자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을 반영한다. 묘실 벽화에 나타난 서예병풍 이미지에서 읽을 수 있는 글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는 화가들이 서예병풍에 쓰인 글보다 병풍의 이미지를 묘사하는데 치중했기 때문이다. Wu Hung, *The Double Screen: Medium and Representation in Chinese Painting*(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 177.

이는 그림을 보면 도 17 다수의 복숭·금대 묘실 벽화에 표현된 문자병풍의 이미지는 묘주의 지성과 부를 상징하기 위해 그려진 장식 이미지와 같이 취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⁴⁶

상징성을 지니는 장식 이미지로 유행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대다수의 묘실 벽화 이미지가 대체로 장묘예술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공예품의 장식문양으로 활용되었던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벽화에 묘사된 수많은 장식 모티프가 현실에서도 대중적으로 얼마나 인기였는지는 복숭·금대 중원지역의 대표적인 민요(民窯)라 할 수 있는 자주요계(磁州窯系) 자기의 장식 이미지와 비교



도 17. 장택단(張擇端), 〈清明上河圖〉 부분

해 보면 알 수 있다. 자주요계 자기, 그 중 특히 자침(瓷枕)을 보면 이전과 비할 수 없는 다양한 장식문양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엔 길상벽사의 상징 이미지 외에도 화훼문, 산수화와 효자고사도도 포함된다 도 18. 자주요계 자기의 장식 문양의 대부분은 묘실 벽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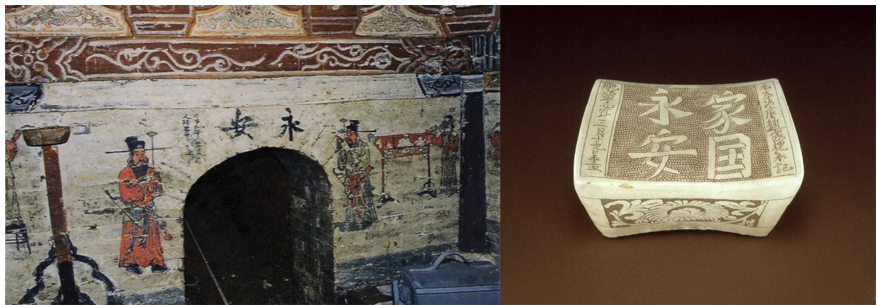
자주요계 자기 장식문양에는 물론 문자도 포함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주요계 자기의 대표 기물인 자침은 실생활용과 부장용으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완상물로 애호되었다고 한다.⁴⁷ 그렇다면 민요계인 자주요에서 생산된 자침에 장식된 이미지는 대중적인 감상 예술의 소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문자 혹은 글귀가 묘사하고 있는 대상 또한 그러할 것이다. 앞서 문자가 묘실 벽화의 이미지로 활용될 때는 어쨌든 관람자의 시선을 배제하기에 그 내용은 크게 중요치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 벽화 속 묵서 내용이 현실의 세계에서 소용되는 완상물에 장식되는 문자의 내용과 유사하다면, 그 의미를 대중예술의 관점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자주요계 자침의 장식 문자는 묘벽화 묵서와는 달리 그 내용을 알아보는 구매자가 반드시 존재

⁴⁶ 복숭의 변경에서 일어나는 활발한 도시생활을 묘사한 〈청명상하도〉에서 그림과 글씨를 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東京夢華錄』에도 그림과 글씨는 변경 시장의 중심인 상국사(相國寺)의 불전 근처에 열린 노점에서 판매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孟元老, 앞의 책(2010), p. 129.

⁴⁷ 김은경, 「高麗時代 瓷枕(瓷器베개) 研究」(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4. 8) 참조.



도 18. 백지흑화장방형침(白地黑花長方形枕), 元, 河北省 邯鄲市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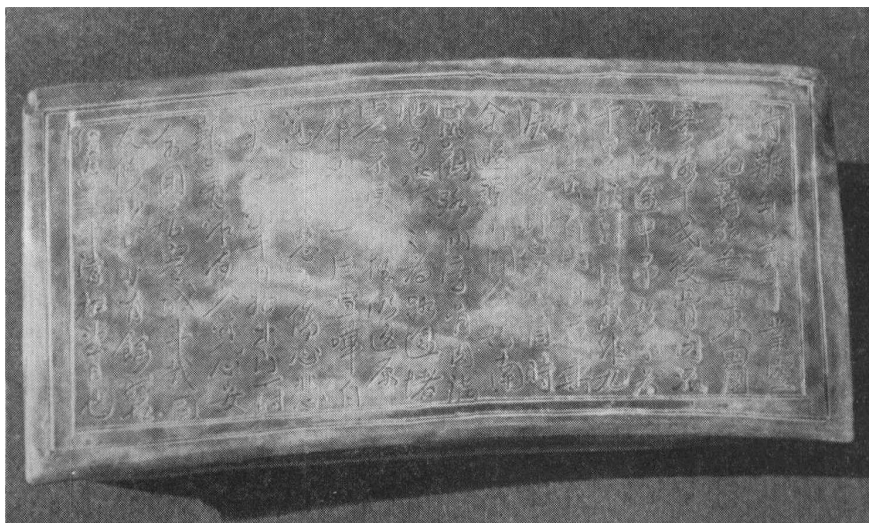


도 19. 좌) 묘실 남벽 벽화, 康莊工業園區壁畫墓, 元, 1276, 山西省 屯留

우) 자주요 “가국영안”명 자침(磁州窯 〈家國永安〉名瓷枕), 높이 13cm, 북송, 1071, The British Museum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주요 자기의 장식 문양으로 애호된 특정 문자나 글귀는 그것이 시각적 효과를 넘은 물론이고 내용에 있어서도 기물 사용자의 취향에 맞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현실 소용의 기물에 나타난 장식 문자와 동일한 내용의 벽화 묘 문서도 이러한 이미지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마지막 예시는 문자의 보급과 일상에서의 예술 경험의 증대가 어떻게 문자 이미지의 발달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제시할 것이다. 묘벽화와 자주요 자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식 문자는 장문의 시문, 산문, 잡극소설부터 ‘福·祿·壽’와 같은 길상적 의미의 단자(單字)까지 다양한 대중적 취향의 소재를 아우르며 도 19 나이가 역사기록까지도 포함한다.⁴⁸ 이와 관련하여 소흥원년(紹興元年, 1131) 및 소흥



도 20. "소흥삼년"명 녹유 문자문 장방형 침("紹興三年"銘綠釉長方形枕), 1133, 크기 미상, 일본
梅澤彦太郎

삼년(紹興三年, 1133) 명 자주요 자침에서 발견된 시문의 내용이 주목된다 도 20.⁴⁹ 자침을 장식하는 문자가 대부분 길상적 의미나 대중적 소재의 시구인 것과 달리, 이들 예는 금군(金軍)에 의해서 파괴된 북송의 현실과 애환을 그린 수필 형식의 글이다. 이는 앞서 예로 든 분류 현 송 존 금대 벽화묘의 묵서에서 제작자가 북송-금 교체기의 상황을 서술해 놓았던 것을 연상시킨다.⁵⁰ 자주요 자침에 나온 글귀와 분류 현 금묘의 묵서는 제작시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특정 시대에 유행한 글의 소재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재미있는 점은 위와 같은 글귀의 사용이 남송대에 문학 작품이나 그림의 소재로 유행했던, 북송시절을 환기하는 이미지의 탄생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금의 북송 침략 사건과 그에 따른 우울한 정서는 문학과 예술을 통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어 갔다. 문자는 다양한 배경의 감상자를 포섭하는 매체 위에 두루 쓰이며 이미 시대 보편적 생각을 담아내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었다. 문자의 이미지화와 장식적 사용은 대

48 자주요계 자기에 나타나는 독특한 장식 문양으로는 〈영희도(嬰戲圖)〉를 비롯한 풍속화와 잡극소설 장면 등이 있다. 지금까지 자주요계 자기의 회화 장식 연구는 도자사 내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자주요계 자기 서예·회화 장식 연구는 다음의 책에 포함된 논고들을 참고할 것. 馮小琦 編, 『磁州窯瓷器研究』(北京: 故宮出版社, 2013).

49 자침에 쓰인 글 전문과 사진은 다음을 참조할 것. 張子英, 『磁州窯瓷枕』(北京: 人民美術出版社, 2000), p. 312; 治秋, 「東游瑣記」, 『文物』12(文物出版社, 1963), p. 61.

50 부록의 3), 4)행 참조.

중성을 띠는 여타의 이미지의 유행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공감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했던 것이다.

V. 맺음말

본 논문은 북송·금대 벽화묘 속 묵서를 분석하여 기존에 묵서에 관한 인식을 재고하고 묵서의 새로운 시대적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북송·금대 벽화묘의 묵서는 전 시대의 묵서와 여러모로 다름을 확인하였는데, 정돈되지 않은 서체와 문법, 내용의 통속성, 벽화 이미지와의 높은 관련성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차이는 묵서의 제작 주체가 주문자가 아닌 무덤 제작자인 사실에 기인한다. 중간계급이 성장함에 따라 벽화묘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벽화묘의 주문자는 대부분 사회적 신분은 높지 않지만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적인 부를 쌓은 이들로 상류계급에 편입되고자 하였다. 이들은 송대 이후로 재 강조된 가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가문의 사회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상류계급의 전유물이라 여겨지는 후장(厚葬)의 제도, 그 중에서도 벽화묘를 사용함으로써 가문과 후손의 번영을 꾀하였다. 하나의 고급 상품으로 벽화묘를 제작하게 된 장인들은 이전과는 달라진 주문자-생산자 관계 속에서 주문자의 간섭을 덜 받으며 비교적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었다. 벽화묘 제작자들은 노동시간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작업을 획일화하고 대중화된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주문자의 취향과 욕망을 빠르게 파악하여 작업 내용, 즉 이미지 선택에 반영하였다. 묘실 벽화 속 묵서는 벽화에서 보이는 상징성이 강한 이미지들과 함께 문자의 권위를 지닌 이미지로써 그려졌으며, 묘주와 후손의 부와 권위에 대한 사회적 욕망을 시각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 주제어(Key Words)

묵서, 송·금대 장식묘, 장례기록물, 묘실벽화, 장의예술

Ink inscription, Song-Jin decorated tombs, burial records, tomb mural, funerary art

〈부록〉

산시 성 퉁류 현 송촌 발굴 금대 벽화묘의 묵서⁵¹

1) 묘실 북벽 묵서

元本住屯留縣宋村宋三命墳」東至古墓西室疑山南至本村」鬼廟北至嶺畔勸人休
毀壤」壤者必定身亡且記耳

2) 묘실 동벽 좌측 묵서

乙卯歲」潞州屯兵十萬差配甚多」楊上監坐知州人名難過大旱二年米一千麥八百
粟五百」本村着鑊鍋三十一個赴本州納

3) 묘실 동벽 우측 묵서

乙卯歲」當播人驅上皇少帝于」領北外有康王走在江南」幡家到江南迴病當年」
正月升四大金皇帝萌(崩?)也

4) 묘실 서벽 좌측 묵서

砌造匠人李通家住沁州」銅堤縣底水村人是」內爲紅巾盜賊驚移到此」砌到葬一
所係大金國」女眞軍國領兵收劫趙皇家

5) 묘실 서벽 중앙 묵서

天會三年歲次乙卯三月一日」甲戌升日癸時下柩宋村」宋三命名榮在此于□□
□□塚塋」當年本村修蓋佛殿□□□遷」奉父母家兄大哥□□□□都」歸大
夜命奄幽谷葬于此所后此五百」年間必逢張強到此馬四毀壤不良必」須再葬」張
強張強」馬四不良」謝你奉觀」必須再葬

6) 묘실 서벽 우측 묵서

乙卯歲凡三百八十四日十二龍治水七日得辛」正月大一日乙巳閏正月大二月小三
月大四月小五月大六月小七月大八月小九月小」十月大十一月小十二月大廿五日
立春」小三命上會天輪甲子閏餘年中氣號」晝夜百刻外宅禮宅六壬鬼蒿記

⁵¹ 벽화 묵서와 사진은 다음의 발굴 보고서에 소개 되어있다. 王進先, 楊林中, 「山西屯留宋村金代壁畫墓」, 『文物』3(文物出版社, 2003), pp. 43-51. 그러나 본 부록에는 원 보고서에 실린 묵서를 수정 보완한 최근 자료의 묵서를 신는다. 王義印, 「山西屯留宋村金代壁畫墓墨書題記研究」, 『中原文物』6(河南博物院, 2014), pp. 113-114. 필요에 따라 묵서 원본 중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글자의 경우 뜻이 통하는 글자로 대체하였다.

참고문헌

『洛陽牧丹記』

『東京夢華錄』

『夢溪筆談』

『宋史』

歐陽脩, 강민경 역, 『歸田錄』, 서울: 학고방, 2008.

김문경, 「고려본 『효행록』과 『이십사효』, 『제13차 중국학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중국학회, 1993.

김은경, 「高麗時代 瓷枕(瓷器베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4.

孟元老, 김민호 역,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 서울: 소명출판, 2010.

박은화, 「오대(五代), 遼, 北宋代 고분벽화(古墳壁畫)의 화조화(花鳥畫) 고찰(考察)」, 『中國史研究』91, 중국사학회, 2014.

박한제, 「魏晉南北朝時代 墓葬習俗의 變化와 墓誌銘의 流行」, 『東洋史學研究』104, 동양사학회, 2008.

———, 「魏晉南北朝-隋唐時代 葬俗·葬具의 變化와 墓誌銘」, 『韓國古代史研究』75, 한국고대사학회, 2014.

小林宏光, 김명선 역, 『중국의 전통관화』, 시공사, 2002.

심광, 최병규 역, 『몽계필담』(상), 범우사, 2002.

우홍, 김병준 역, 『순간과 영원: 중국고대의 미술과 건축』, 아카넷, 2003.

李思羽, 구린 역, 『중국기호사전』, 토담미디어, 2013.

지민경, 「10-14세기 동북아 벽화고분 예술의 전개와 고려 벽화고분의 의의」, 『미술사연구』25, 미술사연구회, 2011.

———, 「北宋·金代 裝飾古墳의 소개와 기초 분석」, 『美術史論壇』33, 한국미술연구소, 2011.

———, 「중국 근세 시각문화에서의 이미지 생산과 소비 - 磁州窯系 瓷枕을 중심으로 -」, 『한국도자학연구』13, 한국도자학회, 2016.

鄧菲, 「試析宋金時期磚雕壁畫墓的營建工藝」, 『考古與文物』1, 陝西省考古研究所, 2015.

廖蓋隆, 『中國人名大詞典: 歷史 人物卷』,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0.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洛陽古代藝術博物館, 「新安縣石寺李村北宋宋四郎磚雕壁畫墓測繪簡報」, 『故宮博物院院刊』1, 故宮博物院, 2016.

山西省考古研究所, 「山西稷山金墓發掘簡報」, 『文物』1, 山西省考古研究所, 1983.

山西人民出版社, 『平陽金墓磚雕』,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2002.

宿白, 『白沙宋墓』, 北京: 文物出版社, 2002.

冶秋, 「東游瑣記」, 『文物』12, 文物出版社, 1963.

烟台市博物館, 「山東萊州南五里村宋代壁畫墓」, 『文物』2, 文物出版社, 2016.

王義印, 「山西屯留宋村金代壁畫墓墨書題記研究」, 『中原文物』6, 河南博物院, 2014.

王進先, 楊林中, 「山西屯留宋村金代壁畫墓」, 『文物』3, 文物出版社, 2003.

- 李浩楠,「山西屯留宋村金代壁畫墓題記考釋」,『北方文物』3,北方文物杂志社,2010.
- 李紅,「宋遼金時代的墓室壁畫」,『中國美術全集 繪畫編』12,墓室壁畫,北京:文物出版社,1989.
- 張子英,『磁州窯瓷枕』,北京:人民美術出版社,2000.
- 長治市博物館,「山西長治市魏村金代崎紀年彩繪磚雕墓」,『考古』1,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2009.
- 鄭州市文物考古研究所·登封市文物局,「河南登封黑山溝宋代壁畫墓」,『文物』10,文物出版社,2001.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唐城隊,「河南洛陽市唐宮中路宋代大型殿址的發掘」,『考古』3,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1999.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唐城隊,「河南洛陽唐宮路北唐宋遺迹發掘簡報」,『考古』12,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1999.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唐城隊,「河南洛陽中州路北唐宋建築基址發掘簡報」,『考古』2,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2005.
- 馮小琦 編,『磁州窯瓷器研究』,北京:故宮出版社,2013.
- De Pee, Christian, “Wards of Words: Textual Geographies and Urban Space in Song-Dynasty Luoyang, 960-1127,”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52, 2009.
- , “Material Ambiguity and the Hermetic Text: Cities, Tombs, and Middle Period History,” *Journal of Song-Yuan Studies* 34, 2004.
- Ebrey, Patricia, *Confucianism and Family Rituals in Imperial China: A Social History of Writing about Rit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 Hansen, Valerie, *Negotiation Daily Life in Traditional China: How Ordinary People Used Contracts, 600-140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5.
- Naquin, Susan, “Funeral in North China”, *Death Ritual in Late Imperial and Modern China*, Berkely and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 Wu Hung, *The Double Screen: Medium and Representation in Chinese Paint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 Zeitlin, Judith T. ed., *Writing and Materiality in China: Essays in Honor of Patrick Hana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 Zhang, Co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and Community: Inn-Wall Writing During the Song (960-1279),” *Journal of Song-Yuan Studies* 35, 2005.

중국의 고대 묘실 벽화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묵서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묵서는 벽화 이미지 해석 시 참조되는 설명문으로, 공인의 작업을 지시하는 숨겨진 안내서로, 또는 묘주의 신분과 업적을 기록하는 용도 등으로 활용된 바 있다. 그 중에서 기존의 연구는 묘지명을 대체하는 문자기록으로써의 묵서의 기능에 집중하였고 따라서 묵서는 피장자의 삶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환경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 정보원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단순한 역사 기록물로 보기에 묵서는 기존의 묘지명을 비롯한 부장 기록물들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묵서에는 특별한 문장 형식이 발견되지 않고 문법도 무시되기에, 재료와 장식, 문장 형식 등에서 규칙을 보이는 묘지명과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또한 그 내용도 묘주를 비롯한 고분 축조에 관련된 자들, 즉 후손과 묘지 건설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고 있어 묘주의 업적과 가문의 위세를 칭송하는 전통적인 묘지문과는 구별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묵서에 관한 인식을 재고하고 기록물이 아닌 묵서의 다른 기능과 의미를 찾아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북송·금대 묘실 벽화 속 묵서에 주목한다. 한대에서 시작하여 위·진시기까지 유행하다 사라져버린 묘실 묵서는 북송 말엽의 벽화묘에서 다시금 나타나는데, 기존의 묵서와 달리 그 형식과 내용이 다양해진다. 북송 이후의 묵서의 재출현은 벽화묘의 대량생산과 유행에 의한 것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벽화묘 주문자에게 일어난 변화를 암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벽화묘 주문자의 특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이러한 특성이 묵서의 형식과 내용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다. 나아가 묵서는 반드시 벽화와 함께 출현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묵서를 기록물이 아닌 벽화의 종속 이미지로 바라보며, 묘실 벽화 이미지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묘실 벽화 속 묵서는 문자의 권위를 지닌 이미지로써 그려졌으며 벽화에 보이는 상징성이 강한 다른 이미지들과 함께 묘주와 후손의 부와 권위에 대한 사회적 욕망을 시각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밝힌다.

Moshu: Ink Inscriptions on the Walls of the Song-Jin Tombs and Their Visual Significance

Ji, Minkyung *

Ink inscriptions on ancient Chinese tomb murals serve many functions: as explanatory text for ease in interpreting mural images, as hidden instructions to mural painters, and as a textual record of the identity and achievements of the deceased.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heir role as textual records, and therefore have recognized ink inscriptions as an important source of historical information, similar to other textual records found in tombs such as epitaphs. In this light, however, ink inscriptions in tomb murals have not been fully studied beyond this function, and their unique formats and other roles have not been highlighted. In fact, ink inscriptions in tombs are clearly differentiated from other textual records found in tombs,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variety of content: they portray not only the deceased's, but also various people's lives, including tomb owners (the descendants of the deceased), and tomb builders (artisans).

Focusing on the unique formats and functions of ink inscriptions in tomb murals, this paper discusses their significance in a broad context. In particular, this paper examines ink inscriptions of the Song-Jin tomb murals that show a wide variety of formats and contents. During the Northern Song period, ink inscriptions re-appeared in tomb murals after almost disappearing around the end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This was mainly due to the mass production of mural tombs, which further stems from the changes that occurred to tomb owners in their social and economic status. By analyzing these changes, this paper shows how tomb owners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 formats and contents of ink inscriptions. Furthermore, based on the fact that ink inscriptions always appear together with mural paintings, this paper argues that ink inscriptions should be considered part of the tomb mural itself; more specifically, as an authoritative image symbolizing the use of letters, the power of knowledge, and high social status. In conclusion, ink inscriptions are used in murals as a means of visualizing the desire of tomb owners for the wealth and prosperity of their family along with other symbolic images.

논문 투고일 : 2016. 11. 28 논문 심사완료일 : 2017. 01. 13 게재확정일 : 2017. 01. 13

* Assistant Professor, Hongik university